

Style

조선일보

FALL/WINTER
2021





MCM



www.mcmworldwide.com



modern creation

movement

글로벌 럭셔리 패션 하우스 MCM은 45년간 독일의 미학과 기술력에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발전한 예술과 문화를 더해 시대를 앞서나갔다. 창립 45주년을 맞이한 MCM의 다음 행선지는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초월의 세계다.

뮌헨에서 세계로, 전 세계를 사로잡다

MCM이 탄생한 1970년대 뮌헨은 모던과 진보, 혁신이 응집된 글로벌 도시였다. 제트족(Jet-set), 패션 전문가, 저명인사, 부유층이 뮌헨으로 모여들었고, 자유를 향한 그들의 열정은 예술, 영화음악, 건축, 패션으로 폭발했다. 글로벌 노매드의 시대정신에 독일의 전통적인 정신을 더한 MCM은 당시 화두였던 여행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세계를 오가는 이들을 위해 트렁크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가방을 모던하게 재해석했다. MCM은 독일 바우하우스 미학을 바탕으로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창조성을 발휘하며 뮌헨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시대를 반영한 음악과 언더그라운드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반항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스타일을 구축하며 글로벌 럭셔리 패션 하우스로 성장했다. 단순히 아름다운 제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변화를 기민하게 포착해 감성과 헤리티지를 담은 라이프스타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미래를 제안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다

여행은 MCM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뮌헨에서 시작된 창조의 여정은 이제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형식과 기능,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역동적인 모험으로 이어진다. 미적인 탐구는 역사 깊은 유럽의 장인 정신, 독일의 뛰어난 기술력과 조화를 이루어 스마트한 럭셔리가 되었다. 진보한 기술력을 적용한, 두 손이 자유롭고 활동이 편한 기능적 디자인을 통해 시간을 누리는 것이 MCM이 정의하는 뉴 럭셔리. MCM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한 럭셔리가 되었듯, 한 가지 스타일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제안하는 새로운 영역을 확장한다. 크랙 & 칼, 토비아스 레베르거, 크리스토퍼 래벤 등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이나 베이비, 프마, 비즈 바이 닥터드레 등 동시대를 대변하는 브랜드들과의 조우를 통해 클래식한 디자인을 대담하게 변화시켜 시대, 나이, 성별을 초월해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MCM만의 세계관을 구축했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통해 소비자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 역시 MCM의 창의성에 힘을 실는다. 이러한 창의적 제



1 MCM 창립 45주년을 기념하여 창립 플래그십 스토어 MCM HAUS에서 선보인 메타버스의 XR 이미지. 2 MCM의 비세토를 입힌 베를린의 브렌덴부르크 게이트. 3 MCM의 과거 비세토를 입은 프라운호프 교회의 모습을 담은 뮌헨의 포스트 카드. 4 1970~80년대 글로벌 노매드족의 여행 필수품이었던 MCM. 5 MCM의 시작이자 핵심 키워드는 여행이다. 6 2016년 아티스트 토비아스 레베르거와 협업해 완성된 리미티드 컬렉션. 7 MCM은 대량생산의 아티스트와 협업해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한다. 사진은 MCM X 생바티스트 리미티드 컬렉션. 8 뛰어난 장인 정신은 MCM을 세계적인 럭셔리 하우스로 만들었다. 사진은 1980년대 독일 공장의 모습. 9 MCM X 베르프의 2019년 제품. 10 MCM X 크리스토퍼의 2107년 제품. 11 지속 가능함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업사이클 프로젝트. 12 소재는 물론 제작 공정도 친환경적인 '타워인 로' 스니커즈. 13 탈향과 발간의 여정을 주제로 2021년 선보인 시그니처 향수 MCM 오드 퍼플. 14 뮌헨과 베를린의 음악적 영감을 담은 2020 S/S 컬렉션. 15 창립 45주년을 기념하여 선보인 빈티지 자켓 모노그램 컬렉션. 16 뮤지션 빌리 아이리시와 2019년 광고 캠페인을 함께했다.

한 뮤지션 페기 구 및 크리에이터 수주쿠 & 브리트부르스트가 모델에 합류하며 1970년대 세계의 중심에 있던 뮌헨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거쳐 새로운 문화의 중심인 베를린과 서울을 잇는다.

MCM의 새로운 공간, Metaverse

MCM은 45년 동안 시대를 앞서가며 런던, 파리, 뉴욕, 베를린, 뮌헨, 뒤셀도르프, 취리히, 두바이, 베이징, 상하이, 홍콩, 도쿄, 싱가포르, 그리고 서울 등 세계적인 패션의 중심에 자리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다. 디지털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디지털 세대, 그리고 포스트디지털 세대를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인 가상 세계에서의 소통이 그것이다. 그곳엔 어떠한 경계도 없다. 국경과 고정관념을 넘어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디지털 글로벌 노매드족이 MCM의 새로운 승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MCM 창립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창립동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메타버스가 모습을 드러낸다. 뮌헨에서 베를린, 동쪽에서 서쪽,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그리고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여정을 강조하는, 어떠한 상상이든 실현 가능한 '초월한

세계가 펼쳐질 예정이다. 45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컬렉션인 큐빅 모노그램에서 영감을 받은 사막, 은하수, 자연 등 가상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XR, 큐빅 모노그램에서 영감을 받은 설치 작품 속 포토존 등 45년의 역사를 넘어 앞으로 새로이 펼쳐질 MCM의 메타버스(Metaverse)를 기대해봐도 좋다. 글 남지현(캘린 에디터)



큐빅 자카드 울 슬림 핏 재킷 1백45만원,
 이너로 입은 엠씨엠 클래식선 프린트 탄성 셔츠
 61만5천원, 큐빅 모노그램 오가닉 코튼 프린트
 티셔츠 34만5천원, MCM X SAMBYPEN
 니트 로고 샷스 7만8천원, 큐빅 로고 자카드 캡
 40만5천원, 큐빅 로고 자카드 숄 49만5천원,
 큐빅 로고 자카드 숄다백 1백70만원, 큐빅 로고
 자카드 슬더 미니 86만5천원, 큐빅 로고 자카드
 크로스 보디 미니 81만원 모두 MCM.

Big hits!

클래식을 넘어 가장 힙하고 스타일리시하게.
 MCM의 새로운 시즌이 열렸다.
photographed by jung ji eun



남성용 로고 윈드브레이커 패딩 2 in 1
 1백5만원, 큐빅 모노그램 오가닉 코튼 스웨트
 셔츠 62만5천원, 큐빅 로고 모노그램 오가닉
 코튼 스웨트 팬츠 59만5천원, 빈티지 자카드
 모노그램 리스틀릿 파우치 52만5천원,
 빈티지 자카드 모노그램 락스타 베너티 케이스
 81만원, 빈티지 자카드 모노그램 클래식
 크로스 보디 93만5천원 모두 MCM.

(여자) 이프레스키 오가닉 프린트 스웨트셔츠 65만원, 큐빅 모노그램 프린트 실크 세단 팬츠 29만원, MCM x SAMBYPEN 니트 로고 셔츠 7만8천원, 그래픽 크로스 보디 93만5천원, 엠 펍 루션 39만5천원 모두 MCM.
(남자) 이프레스키 오가닉 프린트 스웨트셔츠 65만원, 큐빅 자카드 울 버뮤다팬츠 65만5천원, 큐빅 로고 페이스 액세스리 11만5천원, 그래픽 크로스 보디 93만5천원 모두 MCM.



남성용 큐빅 모노그램 울 스웨트셔츠 65만5천원, 남성용 체크울 스웨트 팬츠 67만5천원, 큐빅 로고 자카드 버킷 햇 39만원, 큐빅 로고 레더 백 1백40만원, 트레이시 바케타레더 에어팟 케이스 39만5천원 모두 MCM.



엠씨엠 컬렉션 나파 가죽 재킷 1백75만원,
 엠씨엠 컬렉션 프린트 텐셀 셔츠 61만5천원,
 엠씨엠 컬렉션 프린트 텐셀 팬츠 58만원, 큐빅
 로고 모노그램 버킷 햇 42만5천원, 빈티지
 자카드 모노그램 3단 지갑 39만5천원, 빈티지
 자카드 모노그램 체인 지갑 54만원, 빈티지
 자카드 모노그램 토트 1백25만원, 빈티지 자카드
 모노그램 솔더백 86만5천원, 비세토스 오리자날
 파우치 잠 20만5천원 모두 MCM.



(여자) 엠씨엠 컬렉션 나파 가죽 재킷 1백75만원, 큐빅
 모노그램 오가닉 코튼 프린트 티셔츠 34만5천원, 허리에
 두른 큐빅 모노그램 오가닉 코튼 스웨트셔츠 54만5천원,
 큐빅 로고 나일론 벨트 백 62만5천원 모두 MCM.
 (남자) 엠씨엠 컬렉션 나파 가죽 재킷 1백75만원,
 큐빅 모노그램 오가닉 코튼 잠업 재킷 73만원, 큐빅
 모노그램 오가닉 코튼 스웨트 팬츠 59만5천원, 큐빅
 로고 나일론 캡 35만5천원, 큐빅 로고 나일론
 토트 70만5천원, 큐빅 로고 나일론 백팩
 89만5천원, 큐빅 로고 나일론 크로스보디
 60만5천원 모두 MCM.



(남자) 남성용 나일론 오버레이 체크 울 코트 1백45만원, 큐빅 로고 자카드 쇼파백 99만5천원 모두 **MCM**.
 (여자) 여성용 체크 울 블레이저 99만5천원, 여성용 로고 니트 스웨터 61만5천원, 여성용 체크 울 쇼츠 61만5천원, 큐빅 로고 자카드 크로스 보디 1백25만원 모두 **MCM**.

큐빅 모노그램 오가닉 코튼 잠업 재킷 73만원, 큐빅 엠블럼 오가닉 코튼 스웨트 셔츠 57만원, 큐빅 모노그램 오가닉 프린트 티셔츠 34만5천원, 여성용 로고 니트 바이커 쇼츠 35만5천원, MCM x SAMBYPEN 니트 로고 샷스 7만8천원, 큐빅 로고 나일론 벨트 백 62만5천원, 큐빅 로고 나일론 백팩 1백20만원 모두 **MCM**.

문의 **MCM** 02-2194-6700

헤어 가베신
 메이크업 이아영
 모델 **Jak, Manna**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